

여주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성장지원사업, '나를 만나는 시간' 진행



여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지현)는 지난 8월 2일부터 13일까지 매주 화, 목, 토 학령기 다문화자녀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사업 '나를 만나는 시간'을 진행했다.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부모·자녀관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매주 화, 목, 토 10회기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

은 사회성 증진을 위한 사회극 놀이, 청소년 진로탐색 역할극, LCSI 검사, 수상스키 체험, 낙농체험 등 다양한 프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참가한 대상자들은 “학교에서 해본 적 없는 사회극 놀이를 체험해볼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새 친구도 사귀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수상스키랑 은아 목장에서 체험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해련 기자

shryun210@naver.com



여주시가족센터, 7~8월

가족사랑의 날“여름을 부탁해!”



여주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20일과 8월 10일 여주시민 30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가족사랑의 날 '여름을 부탁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을 부탁해!' 프로그램은 아동요리전문가 장재순 강사를 초빙해 맛있는 간식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보냈다.

7월에 참여한 허000 가정 참가자는 “올해 갑자기 일을 하게 되어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도 못했었는데, 가족사랑의 날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요리 활동을 하게 되어 너무 즐거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8월에 참여한 유00 가정 참가자는 “간단한 방법으로 피자와 팔방수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활동했던 것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가족사랑의 날’은 직장인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户外活动格外小心, 发布恙虫预警

9月份到10月份是感染恙虫病的危险时期, 户外活动要小心谨慎。

恙虫病是感染性疾病。蜱螨跳上皮肤吸血后出现黑色结痂的溃疡是主要特征。潜伏期为6~21日, 一般10~12日出现症状。

恙虫病如果及时治疗1~2日内就会迅速好转, 如果没能及时治疗发烧两周并伴随脑髓膜炎、听觉障碍、耳鸣等综合症状。

因此户外活动时要格外注意蜱螨跳到身上感染恙虫病。建议户外活动时穿长

衣长裤长袜子尽量减少皮肤暴露或者用一些驱避剂、蜱螨防虫剂等。并建议户外活动后把穿过的衣服抖一抖, 洗洗澡清除或许黏在身上的蜱螨。

疾病管理厅白敬蘭厅长叮嘱“秋季是恙螨增加的时期, 为预防恙虫病请减少暴露危险环境”并强调“户外活动后发现被咬的痕迹(痂皮)、2~3周内发生发热出疹有可能是恙虫病请到医疗机构治疗。”



김화자 시민기자

aphroditei@kakao.com

☞ 관련기사 한국어 19면, 영어32면,

일본어 7면, 베트남어 46면,

타갈로그어 6면, 태국어 45면